

독자적 수사역량 강화위한 전문수사관 양성 - 한국형 FBI 아카데미 “경찰수사연수원” 개원 -

경찰청이 경찰대학 부설 「경찰 수사간부연수소」를 경찰청 직속의 「수사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최근 그 개원식을 갖고 독자적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관들을 집중 양성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연수원의 확대 개편과 관련 『최근 범죄양상이 날로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되는 등 수사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문수사관을 집중 양성함으로써 수사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경찰 수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찰청 직속의 독립된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수사간부 연수소”는 지난 84년 경찰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문을 연 이래 매년 4,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감식기법,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전문수사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국방부, 건설교통부, 국제청 등 타 부처 수사관에 대한 수사교육



까지 담당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에 전문 수사기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이번 경찰수사연수원의 개원은 이택순 경찰청장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찰 수사역량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경찰수사역량을 한층 높여 나갈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서는 FBI 아카데미, Division KI와 같은 수사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여 특성화된 수사교육을 실시해 온 상황에서 이제 경찰수사연수원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 개원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도 명실상부한 수사 전문교육기관을 갖게 되었으며 국제적 수준의 수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수사 연수원을 경찰대학교,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와 함께 4대 경찰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으로 경찰수사의 책임과 역할이 커질 것에 대비해 금융·경제범죄와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높여 나가는 등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준 초대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수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사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외국 수사교육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외국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국제적 수사교육기관으로서 외연을 넓힘과 아울러 수사 관련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경찰의 「Think-Tank」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도입

- 도로·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 -



이용섭 건교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스템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갖고 잇따른 납치 실종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월 9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의 참석하에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시 전광판(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 범죄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최근 인천 8세 남아 납치 살해사건과 제주 9세 여아 실종사건을 계기로 아동 납치 긴급 경고 프로그램인 미국의 앰버 경고 시스템(지난 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 피살된 여아 앰버 해커 사건 이후 도입)을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앰버 경고 시스템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 신고될 경우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경고 발령은 경찰관서에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신고가 되고, 보호자가 경고 발령 및 아동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운영 방법은 182센터에서 앰버 경고 의뢰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건교부, 서울시 운영 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며, 전광판(도로, 지하철)에는 사진이 집중되도록 1회 앰버 해커 사건 이후 도입)을 우리나

급으로 송출하고 교통방송으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실시간 방송하게 된다. (도로전광판: 경찰청 소관 전국 50개소, 건교부 소관 고속도로 449개소, 국도 166개소, 서울시 소관 고속도로 224개소이며, 지하철 전광판: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총 3천 311개소)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시 신속 치밀한 공개수배로 유괴범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실종아동 발견 시간 단축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아동 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효과가 극대화되고, 실종아동 발견 구조에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아동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조직과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종아동 치안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조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1면에 이어〉

그리고 이러한 조직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즉 업무의 분화 및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 그리고 공식화와 통합 및 조정이라는 기본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 배분은 본질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사업무의 주체가 경찰이라면, 경찰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수사구조의 합리화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될 시점인 것이다.

오늘날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관리방식의 문제, 관련 종사자들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기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 자체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형사사법의 긍정적인 전망은 보다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사사법기관들이 사회변화를 무시하고 타성에 젖어 운영되고 조직 이해관계 속에서 권력게임의 양상을 보이게 되면 형사사법의 미래는 어두운 수박에 없다.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

- 경찰청, 4월말까지 홍보후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 -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차종인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2001년 안전띠매기 운동으로 사망사고 21퍼센트 감소, 2004년 정지선 지키기 운동으로 사망사고 9.7퍼센트 감소)

경찰청은 이와 관련 4월말까지 이륜차의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엄정한 지도 단속을 할 예정인데, 주된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및 난폭운전 등 세가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2006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12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도 34퍼센트 이상 증가 추세여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와 궤에 따라 이륜차 문화개선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은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범사회적인 교통문화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4월말까지는 퀵

비즈니스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과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법규 위반자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하여 계도를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나눔 음악회』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민들레’ 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흥겨운 선율과 영상, 춤의 만남을 주제로 「제9회 경찰청 나눔음악회」를 개최하는 한편 복지시설 ‘시원원 보육원생」을 초청해 격려했다.



경찰혁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청마루에서 신상우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 6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李相과 의 교통상식-(48)



신인 텔런트 이모군(21)은 지난달 출연료를 모아 승용차를

를 한데 구입했다.

TV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이군은 비록 단역이기는 하지만 요즘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 지고 진짜 유명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 인천에서 야간촬영이 있어 이군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레 비가 온 탓에 시계가 아주 나빠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치고 말았다.

급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진찰을 받았는데 전치 8주의 부상이었다.

학생의 부모가 도착하면서 일은 더욱 난처해졌다.

이군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얼마간의 위로금을 주고 학생 부모와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군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사정을 했으나 소용 없었다. 어

금액을 공탁하면 음주나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군은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 증빙서류를 첨부했다.

결국 이군은 사고 경력이 없고 피해자가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의 정상이 참작돼 검찰로부터 불구속처리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피해자가 거액 요구할때 주당 50~70 만원 공탁하면 불구속

절 수 없이 이군은 경찰서로 동행, 사고 조사를 받게 됐다.

수천만원을 마련할 길은 없고 착잡한 마음으로 여러곳에 자문을 받아보니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사고를 기화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전치 10주 이하일 때는 주당 50만~70만원에 해당하는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두달 지나면 검찰로부터 상당금액의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보다도 이군의 실수로 병원에 입원되어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새삼 자동차 운전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경우신문 구독신청 안내 02-2234-1881

警友들의 休息處 「사랑방」으로 초대합니다

쉽게 찾아와 정담을 나누며 부담없이 휴식과 오락(바둑, 장기, 컴퓨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탁



바둑과 장기도 두고, TV를 볼 수 있는 휴식공간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